

글로벌 지식협력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

2024. 9. 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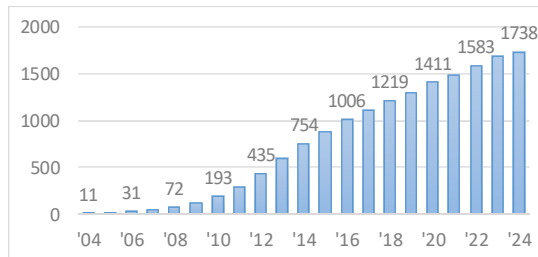
기 획 재 정 부

< 안건 요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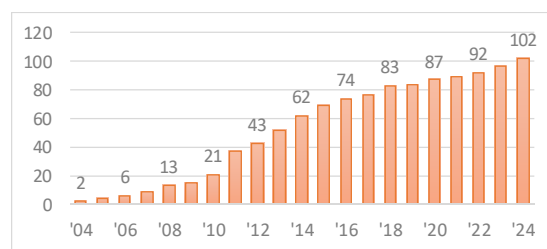
1 추진 배경

-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발전 경험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
→ 협력국 역량 강화 기여 + 우리 기업 수주·진출 지원
- 우리 성장 경험 위주의 개도국 지원사업('04, 2개국)에서 경제·사회 전반으로 자문 주제와 협력국가 확대('24, 38개국)

< KSP 자문 건수('04~'24, 누적) >



< KSP 협력국 수('04~'24, 누적) >



- 최근에는 새로운 지식 창출을 통한 양국간 정책공조, 원전·공급망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필요성 증대

자문수요 변화 사례

- ① (영국) 디지털·핵심기술(AI, 반도체, 양자) 글로벌 표준에 대한 공동연구·대응 협의
- ② (체코·필리핀) 원전 도입을 통한 전력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KSP 협력 협의
- ③ (호주) 양국간 저비용 수소 공급망 구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협의
- ④ (페루) 함정, 훈련기 등 방산 협력에 대한 지식협력 필요성(민간 제안)

- 기존의 사업 체계로는 새로운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, 경제 외교 적시 지원, 후속 사업의 체계적 연계에 한계

현행 체계	한계점
✓ 수요 기반의 수동적 체계	✓ 전략적 사업 발굴 미흡
✓ 경제발전 경험 전수 중심	✓ 기후변화, 공급망, 디지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 모델 부재
✓ 매년 입찰을 통한 단발성 사업 체계	✓ 성과·역량의 축적·관리의 어려움, 후속사업의 체계적 연계 미흡

2 비전 및 추진 전략

비전 : 상생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지식협력 중추국가

- ① 전략적 사업 발굴을 통한 **경제외교 지원 강화**
- ② 지식 공동창출을 통해 **글로벌 현안·미래 이슈 대응에 기여**
- ③ KSP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**지식공유 추진체계 강화**

< 안전 요약 >

3 핵심 추진 과제

- **[한계①]** 협력국 제출 수요 기반의 수동적 선정 체계
↳ 대외전략·공급망·경협 등 고려한 전략적 사업 선정 미흡

⇒ **[전략①]** 국익 고려한 주도적 사업 기획·제안 및 적시 지원 강화

- ① 매년 3년 단위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
- ② EDCF·KOICA 등 유무상 ODA 및 수출금융 등과 패키지 기획 추진
- ③ 긴급사업 예산을 20% → 40% 수준 확대
- ④ KSP 자문위원회 구성('24.下)하여 과제 선정·평가 등에 활용

- **[한계②]** 우리 경제발전 경험·지식 전수 중심의 사업 방식
↳ 범세계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새로운 주제* 대응 미흡
* 기후변화 대응, 공급망 협력, 디지털 표준, 인공지능 등

⇒ **[전략②]** 범세계적 현안·미래이슈 해결 위한 지식협력 모델 개발

- ⑤ 공동연구 등 지식 공동창출형 사업 모델 개발
- ⑥ MDB와 협력 강화, 선진국 개발원조기관과 지식협력 파트너십 체결

- **[한계③]** 법적 근거 부재*로 전문기관 지정·위탁 곤란
* 위탁 근거가 없어 매년 3~4회 입찰을 통한 총괄기관 선정으로 비효율 발생
↳ 조직·인력 안정성 저하 → 성과·역량의 축적·활용 애로

⇒ **[전략③]** 지식과 사업 성과의 축적·공유·환류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

- ⑦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
- ⑧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3~5년 단위 위탁, 지식관리체계(축적·공유) 고도화
- ⑨ 최종 보고서와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추적기능 강화

4 향후 추진계획

- 금번 안전 내용을 바탕으로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 개정 추진('24.下), 「'25-'27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」 수립('25.상)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사업 현황 및 평가	2
III. 비전 및 추진 전략	5
1. 지식공유를 통한 경제외교 지원 강화	6
2. 글로벌 지식협력 중추 역할 강화	9
3. 지식공유 추진체계 강화	11
IV. 향후 추진계획	13

I. 추진 배경

□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'04년 지식 공유사업 시작 → 지난 20년간 협력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

○ 반세기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 발전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를 반영, 사업 규모·협력국 수 지속 증가

◆ 세계은행(WB)은 '24.8월 세계 개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진국 정책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평가

○ 지식 공유를 통한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, 양국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개선 노력도 지속

- 국제기구('11년) 및 민간('22년)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, 중장기·심화 정책자문(EIPP)을 신설('20년)하는 등 사업 방식 다변화

□ 기업 수주 및 정상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식 협력의 역할 증대 속 국제사회의 지식공유 수요도 다변화 추세

○ 협력국에 대한 효과적 역량 강화 지원 요구 지속 + 우리의 대외경제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지식협력 필요성 증가

◆ 기업 수주 및 정상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협력 활용 사례

- ▶ 체코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한 경험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식공유사업 제안('24.7)
- ▶ 카자흐스탄 순방시 K-실크로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공유 MOU 체결('24.6)

○ 전통적 발전경험 外 보건·의료, 기후변화 대응, 공급망 협력,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·미래 이슈로 지식공유 수요 다변화

⇒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대내·외 기대 변화에 부응하고, 글로벌 지식협력 중추국가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 마련

II. 사업 현황 및 평가

1 사업 현황

□ **(사업 개요)**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·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우호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

○ **(KSP)** 우리의 발전경험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단년도 중심의 자문 사업

○ **(EIPP)** 공통된 주제 下 수개의 세부사업을 3년 이상 자문하여 우리 기업 진출과 연계하는 중장기·심화 자문사업(‘20년 도입)

구 분	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)	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IPP)
구 모	한 국가와 연간 1~2건 실시	한 국가와 연간 5건 내외 집중 실시
기 간	원칙적으로 1년(KSP Plus는 2~3년)	5년 이내 지속적으로 협력
예산(‘24)	236억원(38개 국가, 신규사업 기준)	100억원(5개 국가, 신규사업 기준)

□ **(협력국·주제)** 개도국 외에도 우리와 지식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를 접수받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선정

○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·공급망 안정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등을 위해 영국·호주 등 非ODA국과의 파트너십 증가 추세

* 非ODA국 비율(%) : (‘18) 5.4 (‘19) 9.7 (‘20) 11.1 (‘21) 13.8 (‘22) 25.7 (‘23) 22.2

□ **(추진 체계)**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총괄기관·수행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→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

기획재정부	총괄기관 (KDI·수은·코트라·KIND)	수행기관 (대학 산학협력단·민간 컨설팅업체 등)
▶ 제도 및 예산 운영 ▶ 중점분야·추진사업 선정 ▶ 총괄기관 사업 관리	▶ 협력국 협의 ▶ 사업 구체화 ▶ 수행기관 선정·관리	▶ 연구진 구성 ▶ 관련 연구·정책 제언

2

주요 성과

◇ 상호 호혜적 지식공유를 통해 협력국의 법·제도 개선 등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, 우리 기업 수주·진출 등 경제 협력 지원

① **(협력국 발전 기여)** 정책자문을 통해 발전전략 수립 및 법·제도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협력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*

* 이를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 多

<주요 사례>

- (베트남) PPP 법제 마련 자문('19) → 한-베 PPP 법령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 → 최초 PPP 법률제정('20)
- (우즈베크) 경제 자유구역 관련 자문('04~'18, 6건) →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 설치('08) → 우리 기업 입주('19년 기준 17개사)
- (콜롬비아) 국가품질인프라 관련 자문('17) → 국가품질상 개정안 마련 + 담당기관 운영예산 27% 증가('19) →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무역기술장벽 완화

② **(기업 수주·진출 지원)** 정책 제언을 직접 사업화하거나, EDCF·국제기구 협조융자 등과 연계*하여 우리 기업 수주·진출 지원

* 지식공유와 금융지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협력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제고

<우리 기업 수주>

- (몽골) 버스정보 및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자문('12) → 국제기구(ADB, 30만불) 및 몽골 정부(150억원) 발주 사업에 우리 기업 수주('13, '14)
- (아르메니아)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자문('15) → 아르메니아 정부 발주 사업 (총 200만불 규모)에 우리 기업 수주('17, 90만불)

<후속사업 연계>

- (케냐) 스마트시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자문('19) → (EDCF) 콘자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 F/S('23) + (EIIP) 인큐베이션 단지·스마트팜·신재생에너지 등 세부 분야 기본계획 수립('21~'24)
- (이집트) 특허제도 개선 자문('16) → 특허 포털·검색시스템 개발 고도화 → KOICA 연계 지원('19~'22, 290만불)

③ **(협력기반 강화)** 정책자문과 연계한 MOU 체결, 투자포럼 개최 등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

<주요 사례>

- (파라과이) 의료산업 관리방안·인증제도 자문('22) → 한국 식약처,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과 파라과이 관련 부처간 MOU 4건 체결('23)
- (타지키스탄) 섬유제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자문('22) → 산업신기술부 차관·우리 기업(패션기업 및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등)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('24)

3

평가 및 한계

□ **(평가)** 국무조정실 「정책자문 ODA 사업 평가」(22.12월) 결과,

- 제도개선 노력, 협력국 참여, 성과평가 체계, 고위급 정책대화 실시 등 긍정 평가, 다만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성 등 제기

사업수행 체계상의 개선 사항(22.12월 국조실 평가)

“사업수행 프로세스는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,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는 작고 사업 수행 기간이 단기간이며, 이에 비해 행정적 부담은 과도하다는 의견”

- ① **(분절화)** 사업 수행에 있어 총괄부서 - 총괄기관 - 수행기관간의 분절성 지적
- ② **(낮은 예측가능성)** 매년 입찰을 통해 사업총괄기관이 결정되는 위탁관계 → 총괄기관의 예산불안정성 → 사업 수행 조직 및 사업수행 인력의 불안정성 야기
- ③ **(역량 축적의 어려움)** 사업 수행인력의 빈번한 퇴직 → 총괄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

□ **(한계)** 현행 사업 체계로는 글로벌 지식공유에 대한 변화된 기대에 부응하고,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

① 매년 협력국의 자문수요를 제출받아 선정하는 수동적 체계*

*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제안 제도를 '22년 도입하였으나,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

- 대외경제전략 이행, 공급망 안정, 경제협력 강화 등 우리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 선정이 미흡한 구조
- 중점 협력국·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곤란하고, 개발협력 사업간 시너지 창출에도 한계

② 우리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 전수 중심의 사업 방식

- 기후변화 대응, 공급망 안정, 디지털 전환 등 범세계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지식공유 방식 개발 필요

③ 사업 결과물·성과 등의 체계적 축적·공유 및 환류 체계 미흡

- 단년도 중심(매년 입찰)의 사업 체계로 인해 성과 및 노하우가 지속 축적·관리되기 어렵고, 차년도 사업에 환류 미흡

Ⅲ. 비전 및 추진 전략

비전

상생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지식협력 중추국가

목표

- ①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
- ② 범세계적 현안 해결 및 미래이슈 대응에 기여
- ③ 경제협력 및 대외정책 이행 지원 역할 강화

세부 추진 과제

경제외교 지원강화

- ① 전략적 · 주도적 사업 기획체계 구축
- ② 긴급사업 확대 등 사업 추진의 적시성 제고
- ③ 전문가 · 민간 참여 제도적 확대

글로벌 지식협력 기여

- ④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 개발 및 정책협력 연계
- ⑤ 다자개발은행(MDB)과의 협력방식 개선
- ⑥ 신흥공여국 · 선진국과의 삼각협력 추진

지식공유 추진체계 강화

- ⑦ 지식공유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
- ⑧ 전문기관 지정 및 지식의 축적 · 공유체계 마련
- ⑨ 평가 및 성과추적 체계 정비
- ⑩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플랫폼 역할 강화

1 지식공유를 통한 경제외교 지원 강화

1-1 전략적 · 주도적 사업 기획 체계 구축

□ 대외전략 이행지원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3년 단위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

- 추진계획에 따라 상·하반기 지역별 및 분야별 추진전략 연구를 실시*하여 중점 협력국가·주제 및 사업화 전략 마련

* (예시) '24년 하반기에는 공급망, 청정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, 「인태 전략의 효과적 이행지원을 위한 KSP 사업화 및 추진 방안」 마련 예정

□ 중장기 전략, 협력국 현장수요, 경제외교 성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·기획하고 협력국에 제안*

* (사례) 체코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과 EIPP를 협력패키지로 제안('24.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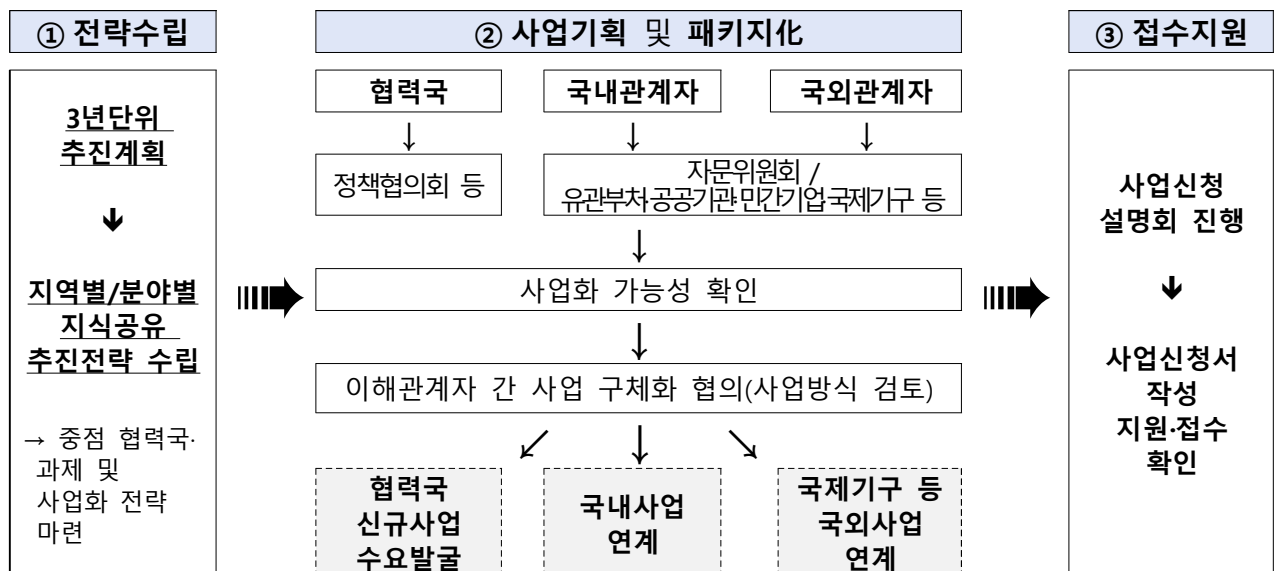
- EDCF 정책협의회 등*에 함께 참여하여 협력국의 정책 의제 및 협력사업을 상시 파악 → 협력국 수송기관과 사업 공동 기획

* 경제공동위, MDB 현지사무소, 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협력국과의 접점 확대

- 고위급 교류 계기, 성과사업과 연계한 「지식협력 MOU」 체결

* 국조실·외교부는 MOU를 체결한 국가·분야의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

<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 체계 >



□ 정책자문 시 유무상 ODA(EDCF, KOICA 등) 및 경제외교 지원용 “K-Finance Package”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제안 추진

○ 개발협력의 앞단에서 금융지원·역량강화·기술지원 등 후속 ODA 사업 및 타부처 경험사업 등과의 연계 방향성 제시

* KSP 결과 보고서 작성시 他ODA·경험사업 등과의 연계 챕터 포함

○ 개발 프로젝트 중 사업성이 높은 분야, 공급망 프로젝트의 경우 수출 금융, 공급망기금과도 연계

< 예시 : 다부처 협력 패키지 구성안 >

KSP(기재부) 이집트 철도 현대화 방안	EDCF(기재부) + KOICA(외교부) + 국토부 등		수출 금융 등 차량 수출 지원 (수익성 高 분야)
	EDCF	■ 나흐하마디~룩소르 구간내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	
	KOICA	■ 기술대학 내 철도관련 학과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	
	국토부	■ 기관사등 기술인력 대상 신호제어시스템 운영기술 전수	

□ 발굴·기획한 사업의 원활한 선정을 위한 접수 지원체계 마련

* ❶사업 신청 설명회(온·오프라인)를 통해 신청서 작성·접수 절차 안내 → ❷총괄기관 담당자를 통한 신청서 작성 지원 → ❸신청서 접수 여부 등 모니터링

1-2 사업 추진의 적시성 제고

□ 긴급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경제외교 지원, 후속 자문사업, 他ODA나 국제기구·민간과 연계된 사업의 적시 추진 도모

○ 현행 20% 수준인 긴급사업 비율을 40% 수준까지 점진적 확대

* KSP 外 EIPP(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)도 필요시 긴급요청사업으로 추진

Fast Track 운영 활성화(22년 국조실 평가시 정책제언)

■ 후속사업 연계성 강화 및 시의성 있는 정책자문 제공을 위해 중점협력국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정책자문 수요가 있는 경우, 기존 N-2를 거치지 않고 신속 사업 착수가 가능한 Fast Track 제도, 예를 들면 KSP 긴급컨설팅 등을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 활성화하는 것을 제언

□ 성과 발현 촉진을 위해 추가 역량 강화·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 이행지원(6개월 이내)을 신속히 추진하는 체계 마련(내역사업 신설 등)

* 현재는 사업 종료 후 이행 부진이 확인되더라도 신규 사업 신청 및 선정을 거쳐야만 추가 지원 가능 → 성과 발현 장애요인의 신속한 해결에 한계

- 지역 전문가 등*으로 KSP 자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역별 사업 발굴·평가 등 자문

*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, 학계·산업계 전문가 등

- 자문위원 풀(Pool)을 수석고문(KSP), 자문관(EIPP) 선정시 활용

< 기존 협의체 현황 및 자문위원회 구성(안) >

추진협의회(기재부 1차관)	자문위원회			
▶ 유관 부처 및 기관 참석 ▶ 사업 추진 방향, 사업별 추진계획, 성과평가 등 의결	▶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 ▶ 분과별 정기적 운영(연2회) ▶ 중장기 전략, 사업발굴, 평가 등 자문			
실무협의회(기재부 대외국장)	아시아 분과	중동· 아프리카 분과	중남미 분과	CIS· 유럽 분과
▶ 평가단 구성, 우수 수행기관 선정 등 추진협의회 지원				

- 사업별 중간보고(5~6일간 국내 초청) 시 민간 참여* 세션을 구성하여 협력국과 우리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, 연계 사업 수요 발굴

* 사업별 중간보고 일정을 해당 주제 관련 협·단체에 공유하여 참여기업 모집

- 현지 자문 과정에서 투자진출 세미나, 수출·수주 상담회 및 시연회, 기업인 간담회 등 우리 기업 참여 기회를 최대한 마련

- KSP 인턴십*(Young KSPian)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개발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('23년 10명 → '24년 20명)

* 주요 활동 : ❶사업 단계별 각종 출장 참여, ❷국가·사업 관련 자료 조사·정리 및 유관 세미나 참석 등 학술활동, ❸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

< 사업 단계별 전문가·민간 참여 확대 방안 >

기획 단계	추진 단계	종료 단계
▶ 자문위원회 구성 <개선>	▶ 청년 전문가 양성 <확대> ▶ 중간보고회 민간 참여 세션 제도화 <확대·신설>	▶ 최종보고회 계기 기업 간담회 등 개최 <확대>

2 글로벌 지식협력 중추 역할 강화

2-1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 개발 및 정책 협력 연계

- 복합적 이슈, 미래지향적 정책, 신기술 영향 등 새로운 지식의 공동 창출에 기여*하기 위한 사업 방식 개발 추진

* 기후변화 대응, 디지털 전환, 공급망 안정화, 인공지능 등 글로벌 공조, 국제 규범·기술표준 마련이 필요한 새로운 지식협력 수요에 대응

- 협력국에 대한 정책 자문 외 **공동 연구·세미나 중심 모델 개발**

* ①수요 발굴 절차, ②연구진 구성 방안, ③평가 지표, ④후속 사업 연계 방식 등 새로운 모델에 적합한 사업 지침 마련

< 영국·호주와의 KSP 협력 사례('24년) >

사업명	한·영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강화	호주NSW州-한국 수소 공급망 협력
사업 목적	•양국간 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도출	•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와 저비용 수소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 마련
공동연구 주요 과제	•양국의 디지털·핵심기술(AI, 반도체, 양자) 표준화 등 현황 조사 •핵심기술 국제규범 제정과 표준화를 위한 협력방안 도출	•양국 수소산업 현황·공급망 진단 •항구 평가 및 수송운송 회랑 식별 •호주NSW-한국 수소공급망 로드맵 수립
주요 산출물	•양국 디지털핵심기술 경쟁우위 분야 도출 •정부-민간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	•한-호주 수소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방안

- 공동연구 성과를 정책 공조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

- 국장급 이상 **정부간 대화 채널***에 연구 성과를 의제化하여 논의

* 연구 주제에 따라 산업부·과기부 등 유관 부처의 정부간 대화 채널 적극 활용

- 장관회의 등 **고위급 교류 계기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**하여 정책 공조를 위한 협력국 관심 제고

기존 모델 (한국 경험 전수 + 협력국 정책化)	+	새로운 모델 (미래·글로벌 이슈 대응 + 정책 공조)
▶ 우리 경험을 활용한 정책 제언 ▶ 협력국의 법·제도에 반영 지원 ▶ EDCF·MDB차관·민간투자 등 후속연계		▶ 공동연구 등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·확산 ▶ 정부간 대화·고위급 교류 계기 의제化 ▶ 정책공조 + 제3국(개도국 등) 공동자문

2-2

다자개발은행(MDB)과의 협력방식 개선

- 지역 전문성 활용, MDB 자체 사업과의 연계 등 공동컨설팅 사업*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MDB의 KSP 활용성 강화

* '11년부터 12개 MDB와 누적 165건의 공동컨설팅 사업 수행 중 → 신규 사업 발굴 중심의 협업에 그쳐 MDB를 활용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

- 현지 전문가 선정 시 MDB 추천 컨설턴트 우선 활용

- 사업당 수행기간·규모 확대*를 위해 KSP-Plus 활용

* Pre-F/S, F/S에 통상 9~10억원 소요되나, 현행 공동컨설팅은 사업당 4.5억원에 불과

- MDB 국가사무소 등과 정례협의 및 수시협의* 추진

* KSP 보고회를 위해 현지 방문시 MDB 사무소와 KSP-MDB 협업 방안 논의

< KSP와 MDB 사업간 연계 방식(예시) >



2-3

신흥공여국·선진국과의 삼각협력 추진

- 역내 공통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, 카자흐스탄, 터키 등 신흥공여국과 삼각협력, 다자협력* 과제 신청 시 우선 선정

* (예시) 태평양동맹(칠레·콜롬비아·멕시코·페루) 국가들과 민자사업 KSP 추진

- 우리 총괄기관과 독일, 영국, 일본 등 선진국 개발원조기관*과 지식협력 파트너십 체결 → 제3국 공동 자문·후속사업 발굴 등 협력

* 독일 GIZ(국제협력공사), UN SDSN(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) 등과 정기적 업무협약,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사례를 공유하고, 공동 사업 수요 발굴

3 지식공유 추진체계 강화

3-1 지식공유사업 법적 근거 마련

- 지식공유사업의 안정적 추진, EDCF 인프라사업과의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 내 법적 근거 마련 추진

- 협력국과 정책협의 시 EDCF 인프라사업 등과 지식공유사업을 함께 협의·검토 → 지식공유·금융지원간 유기적 연계 강화*

*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(3년 단위)에 EDCF 인프라사업 등 연계 계획 반영

계획 단계 연계	사업 단계 연계(예시)				
◦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 ↓ ↑ ◦ EDCF 중기후보사업	정책컨설팅 인니 녹색산업단지 개발전략 KSP	+	정책차관 녹색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	+	인프라차관 녹색산업단지 + 주변 인프라

3-2 전문기관 지정* 및 지식의 축적·공유 체계 마련

* 현재는 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입찰을 통한 총괄기관 선정 불가피

- 3~5년 주기로 전문기관(총괄기관)을 지정함으로써 매년 입찰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기획력·역량축적 미흡 등 비효율 해소
- 단년도 계약 체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식공유 전략을 수립하고, 사업 기획·형성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

- 현행 결과보고서 수집 중심의 지식관리 체계를 고도화*하여, 사업과정·노하우를 축적하고, 검색·공유 등 활용성 강화

* 공식 보고서 외 현지 조사자료, 보고회·세미나 영상, 평가 및 성과추적 결과 등 사업 쏘단계의 정보수집 → 수석고문 등 사업 참여자와 공유 + 후속사업 등 환류 강화

- 사업 쏘단계에 대한 정보 공유·환류로 사업 주체간 분절성 해소

현행 (매년 용역 입찰 방식)	개 선 (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 지정)
▶ 중장기적 기획 제약 ▶ 입찰·결산 절차로 실제 자문기간 단축 ▶ 기관지식 축적·환류·공유 미흡	▶ 중장기 전략수립·사후관리 기능 강화 ▶ 행정비용 경감으로 자문 내실화 ▶ 지식·역량 축적 및 사업 분절성 해소

3-3

평가 및 성과추적 체계 정비

- 사업 수행 및 정책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최종 보고서 수요자인 협력국 담당자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

* (현행) 최종보고서 잠정안을 자문평가위원회(국내 전문가)에서 평가 → (개선) 협력국 담당자의 보고서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추가

- 성과 모니터링 및 추적평가는 기존 정책이행 사례 수집 중심에서 다변화된 지식공유 목표* 및 추진방식을 감안하여 재정비

* ①협력국의 법·제도 개선 등 역량강화 지원, ②他ODA사업 등과 연계한 효과적 개발협력 지원, ③우리 기업 수주·진출 지원, ④글로벌 이슈의 공동 해결 모색

- KSP와 유사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는 선진 공여기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 평가·추적 체계 구축

* '24년 ODA 자체평가 과제로 KSP 총괄기관별 평가·성과관리체계를 평가하고 KOICA, 독일 GIZ, 다자개발은행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도출

- 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, 협력국 선정 및 사업 기획·발굴·운영에 환류하기 위한 성과추적 DB 구축

3-4

지식공유 플랫폼으로서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역할 강화

-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통해 지식공유의 성과를 홍보·확산*하고, 지식공유사업과 연계하여 협력국에 대한 추가 역량강화 지원**

* '24.9월~12월간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"KSP 20주년 특별전" 운영

** (예시) ①KSP 중간보고회와 연계하여 심화연수 프로그램 운영, ②KSP 종료 후 현지 담당자 교체·정책여건 변화 등 추가 연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 지원

- 주한대사관 협의체,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국 초청 세미나*, 국제기구 공동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 지식공유 네트워크 확대

* 매년 '지식교류의 날' 행사를 개최, 올해는 '디지털 전환'을 주제로 국제기구 및 협력국 관계자 초청 세미나 추진('24.10월)

- 글로벌 지식협력 수요를 확인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으로 환류

IV. 향후 추진 계획

- **(법적 근거 마련)** 관계부처 의견수렴·입법예고·법제처 심사 등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절차 추진('24.下~)
- **(추진계획 수립)** 금번 안건 내용을 구체화하여 「'25-'27 지식공유 사업 추진계획」 수립('25.上)

<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 >

추진 방향	세부 과제	일 정
I. 경제 외교 지원 강화	1-1-1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	'25.上
	1-1-2 협력국 수총기관 등과 사업 공동 기획	상시
	1-1-3 유무상 ODA 등과 패키지화	상시
	1-1-4 협력국 접수지원 체계 구축	'24.下
	1-2-1 긴급사업 예산 확대('26년 예산안 반영)	'25.下
	1-2-2 소규모 이행지원 체계 구축('26년 예산안 반영)	'25.下
	1-3-1 KSP 자문위원회 구성	'24.下
	1-3-2 중간보고회 시 민간참여 세션 구성	상시
	1-3-3 KSP 인턴십 규모 확대	'24.下
II. 글로벌 지식협력 중추 역할 강화	2-1-1 지식 공동 창출 모델 개발(지침 마련)	'25.上
	2-1-2 정부간 채널을 통해 의제화·세미나 개최	상시
	2-2-1 공동컨설팅에 MDB 추천 컨설턴트 활용	상시
	2-2-2 공동컨설팅에 KSP-Plus 활용	'25.上
	2-2-3 삼각협력·다자협력 사업 우선 선정	'25.上
	2-2-4 선진국 개발원조기관과 파트너십 체결	'25.下
III. 지식공유 추진체계 강화	3-1-1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 개정 추진	'24.下
	3-1-2 지식공유 전문기관 선정	법개정후
	3-1-3 사업 정보 관리체계 고도화	'25.下
	3-2-1 협력국 담당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	'24.下
	3-2-2 모니터링성과추적 체계 재정비	'25.上
	3-3-1 KSP 20주년 특별전 운영	'24.下
	3-3-2 지식교류의 날 행사 개최	'24.下